**[하나님 아버지 - 선택]** 2020.05.10

엡 1:3-6 정성록 목사님

엡 1:3-6

1.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2.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3.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4.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 우리는 이미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다.
* 하늘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복이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감각적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늘의 복이다.
*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감각하느냐이다.
*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감각하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녀나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는가, 신령한 복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되었는가를 바울이 말씀해 주고자 한다.
*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면 살 수 있는가?
* 우리는 어떻게 구원 받았는가?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아서는 안된다.
*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다.
*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성경을 주셨다.
* 성경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
* 나로 인해 구원받았다면 구원에 대한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
* 신앙을 사람에게 두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 사람은 사랑해야 될 존재이다.
* 사람은 사랑을 나눠줘야 할 존재이지 의지할 존재가 아니다.
* 엡 1:4-5
* 구원 =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다.
* 신구약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으신 것이다.
* 구원의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해 주셨다.
*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
*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 사람은 절대로 믿을 존재가 아니다.
*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곳이 출 3:6-10 말씀이다.

출 3:6-10

1.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뵈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2.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3.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4.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5.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 출 3:8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가겠다고 하신다.
* 출애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모세가 아니다.
*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말씀하고 계신다.
* 이 우주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신다. 그러므로.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다.
*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엡 2:8-9

1.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2.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 칼빈이 이야기하길,

우리 안에, 모든 인간 안에 종교적인 씨앗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데,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고 했다.

*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우리가 신을 찾아야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
* 인간은 한계를 느끼기 전까지는 인간 스스로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인간이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

* 현재 과학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고 있다.
* 현재 과학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현대의 바벨탑을 쌓고 있다.
*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는 것이다.
*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신 일은 우리를 택하셨으며(엡 1:4),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엡 1:5)이다.
*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이유가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으나,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셨다.
* 우리를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이시다.
*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의 구원은 필요치 않으시다.
* 하나님께서 우리가 없어도 홀로 영광 받으시며, 기쁘시고, 충만하신 분이시다.
*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치 않으시다.
*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기뻐하시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인가?
*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취소하시지 않으신다.
* 우리는 외부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야 기쁘다.
*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기쁘신 분이시다.

시 115:3

1.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다 행하시는 분이시다.

시 135:5-6

1.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2.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모든 일을 다 행하셨다.
*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다.
*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다.
*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완전하신 기쁨을 누리셨다.
*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시작되었는가? 요 17:24 말씀을 찾아보자.

요 17:24

1.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창세 전부터 시작되었다.
*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부터 아들을 사랑하셨다.
* 하나님께서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요 5:20 말씀에서 확인해 보자.
*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을 읽어라.

요 5:20

1.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셨는데, 어떤 복을 주기를 주저하지 않을 만큼 사랑하셨다.
*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이는 요 3:34-35에 말씀하셨다.

요 3:34-35

1.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2.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 신령한 복은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이다.
* 신령한 복의 원인은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사랑하심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셨다.
*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다.
* 엡 1:3-4 말씀을 보면, [아버지]라는 말씀이 있다. 여러분은 [아버지]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로 인해,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변화를 받는다.
* 하나님 아버지께 편지를 쓰게 되면, 대부분이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자녀로서의 모자람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함은 어버이 때문이다.
*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셨다.
*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기 전에 [아버지]로 존재하셨다.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것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녀에게 행하시는 것이다.
*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길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신다.
* 신 32:6을 봅시다.

신 32:6

1.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사 63:16

1.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 하나님께서는 한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시다.
*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귀한 존재이다.
*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다. 이것은 요일 4:9-10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다.

요일 4:9-10

1.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2.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심이다.
* 우리는 창세 전부터 구원받은 존재이다.

요 14:31

1.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체를 사랑하신다.
*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 사랑이시다.
*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다.
*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은 롬 8:31-39에 말씀하고 계신다.

롬 8:31-39

1.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4.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6.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 부모님께서 계신 성도님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다.
*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점

*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다.
*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기도 제목

* 하나님 아버지에게 받은 사랑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소서.
*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기도하게 하소서.

적용

* 부모님이 계신 이천호국원에 다녀오겠다.